

## “DMZ 공중정원, 현실의 정원 됐으면”

30 May, 2016 | 황수현 기자

### “DMZ 공중정원, 현실의 정원 됐으면”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 초대된 최재은 반 시계루의 '꿈의 정원'. 비무장지대에 대나무를 이용해 13cm 길이의 보행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사진 김태동(국제갤러리 제공)

#### 베니스 비엔날레 최재은 작가 '꿈의 정원'

“비무장지대(DMZ)는 한국이 아닌 전세계의 보물입니다. 이 작품이 한국의 분단 역사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통일의 가고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의 최재은 작가가 '꿈의 정원(Dreaming of Earth)'이란 작품으로 제15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에서 참가했다. 한국 작가의 본전시 초청은 4년 만이다. 27일 전시가 열리는 아르세날레(옛 해군기지)에서 최 작가와 그와 함께 작품을 완성한 프리츠커상 수상자 일본 건축가 반 시계루를 만났다.

'꿈의 정원' 프로젝트는 이번 건축전과 상관없이 작가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추진해온 결과물이다. 2014년 아트선재의 '리얼 디멘션 프로젝트'에 참가해 강원도 철원을 방문한 최 작가는 남북 분단을 상징하는 지역에 6,000여종의 식물 이식하는 것을 보고 이곳을 가로지르는 공중정원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대나무와 천연재료를 사용해 지면에서 3~6m 정도 떠 있는 총 13cm 길이의 왕복 보행로를 만들고 보행로 중간중간 13개의 공중정원과 군사분계선 근처에 20m

높이의 전망대 '바람의 탑'을 설치하는 안이다. DMZ 안에 매입된 지리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한편 인간의 손길이 닿은 적 없는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취지다. 최 작가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오랜 친구인 반 시계루에게 협업을 제안하고 지난해 3월 통일부에, 올해 1월에는 유엔에 기뢰안을 제출했다.

“DMZ 안에서 자유롭게 오가는 생물들을 보며 전쟁과 분단으로 인공적인 공간과 극명하게 대비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가로써 이 공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인간과 자연을 모두 보호하는 공중정원을 떠올렸습니다.”

민민을 위한 사회적 건축작업으로 유명한 반 시계루는 최 작가의 발상에 흥미를 갖고 가까이 동참했다. 그는 “한국과 분단 상황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다른 나라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참여했다”며 “지난해 11월 최 작가와 함께 DMZ를 방문했는데 생각보다(남한과) 나무가 너무 높았다. 이렇게 가깝다면 다리를 놓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중정원의



최재은(왼쪽) 작가와 '꿈의 정원'을 함께 작업한 일본 건축가 반 시계루.

**“비무장지대는 전세계의 보물 인간-자연 모두 보호하고 싶어” 전시장엔 200분의 1 모형 설치 함께 작업한 日 반 시계루 “주재료 대나무 자연의 힘 상징 통일 자연스럽게 이뤄지길”**

재료를 대나무로 재안한 것은 반 시계루다. 그는 “콘크리트나 철골 대신 대나무를 소재로 택한 이유는 구조적으로도

튼튼할 뿐 아니라 자연의 힘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며 “통일이 일반적인 힘이 아닌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장에는 공중정원을 실제 크기의 200분의 1로 축소시킨 모형을 설치했다. 한편에는 리얼전장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DMZ의 생성 과정과 그안의 식물들을 보여주는 영상 '불과 시간'도 선보였다. 최 작가는 “영상 작업에 사용된 DMZ 사진과 역사자료 등 아카이브를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며 “여기서 떠나 아가 생태계 자료실, 종자은행 등을 공중정원 안에 설치해 DMZ의 귀중한 유산을 보존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꿈의 정원”은 지난해 전남 담양의 대나무 10그루를 수원으로 이식하며 첫발을 디뎠다. 최 작가는 전 세계 각지에서 인류 평화에 기여한 인사들과 함께 인터뷰 및 대화를 진행해 이를 글로벌 프로젝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일은 언젠가 현실이 될 거라 믿으면서 꾸는 꿈이죠. 그래서 '꿈의 정원'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꿈의 정원이 현실의 정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베네치아=황수현 기자